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24, 2016 Vol. 555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베델한인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축제가 20일(주일)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40년의 '축복'…내일의 '사명'으로

베델한인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축제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는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설립 40주년 감사축제'를 20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열었다.

감사축제는 공동체별로 준비한 찬양과 댄스, 연주회, 4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등을 통해 지난 역사를 회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한요 담임목사는 "교회 설립 40주년이란 어제의 축복을 미래의 40주년을 향한 미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교회"라고 전했다.

이날 주일 3번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손인식 은퇴 목사는 '일급수 청정 감사'(왕기하6:15~18) 주제의 설교를 통해 "40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오염되지 않는 감사를 드리자"고 말했다. 손 목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 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기도하는 영혼들이 지금의 현실을 놓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통일까지도 개입하셔서 마지막 날에 한국과 이민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목사는 "은퇴하고 3년 만에 다시 온 교회이다.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마지막 베토벤 9장 협연을 마친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면서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독일어를 토를 달아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베델한인교회는 1976년 9월 라구나힐스에서 윤영오 목사가 개척해, 2대 백태현 목사 때에 얼바인으로 이전했다. 3대 손인식 목사 때 2백여 명의 성도가 2천 명으로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외적으로는 KCC 통곡기도회 운동을 이끌었고, 내적으로는 새로운 본당을 건축하며 큰 성장을 이뤘다. 4대 담임으로 부임한 김한요 목사는 "전교인을 복음으로 재무장 해 흩어지는 교회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모토로 사역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벧엘교회…추수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

남가주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 추수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가 미주예수교성결교회 서남지방회 목회자들을 강사로 15일~19일까지 은혜 가운데 열렸다.

19일 열린 새벽부흥회에서는 김 제임스 목사(워십포도원교회 담임)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김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사야서 61:1~2)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기름 부음은 성경 66권의 흐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라"고 전했다.

새벽마다 참석한 한 성도는 "매일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풍성했다. 단비와도 같은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벧엘교회는 이 새벽부흥회를 마친 후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의 예배로 드리며 새신자를 초청하고 찬양제를 열었다.

[관련사진 3면에 계속]

이인규 기자

유럽, 무슬림 난민 기독교 개종 크게 늘어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그리스도의 사랑

무슬림 난민들 가운데 개종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독교 뉴스통신사인 브레이크포인트는 최근 "언론에 따르면,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고, IS가 서양 세계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유럽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동의 혼돈, 의심, 불확실성에 놓인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유럽에서만 현재 수만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

브레이크포인트는 이란 출신의 무슬림인 자바드의 간증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바드는 어떤 기독교인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8년 그리스로 이동했는데 동료 난민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도했다.

현재 자바드는 자신이 접한 복음을 그리스의 다른 난민들과 나누고 있다. 그는 매일 난민 센터나 공원, 커피숍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하기 시작한 이후 매일 2~3명의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다고.

자바드는 "제가 일하고 있는 난민 센터에서 지난 8년 동안 약 2,00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난민 센터 외에 유럽의 여러 곳에서 수 천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들도 등장하고 있다.

베를린의 한 교회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약 1,200명의 무슬림들이 개종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혹은 이란 출신이다.

함부르크의 한 페르시아 교회에는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무슬림 600여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예배 도중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한 젊은 이란 여성은 독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평생 평안과 행복을 찾아왔는데 이슬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신을 두려워하고, 죄와 처벌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다.

교회 역사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게리슨은 자신의 책 '이슬람의 집에 부는 바람'(A Wind in the House of Islam)에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무슬림 개종은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게리슨은 "몇 십년 동안 우리는 '이슬람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무슬림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이들은 무슬림 세계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 ⓒvoiceofthepersecuted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Since 1999
www.e-nca.org
Thanks Givin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Irvine
La Canada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New Covenant Academy
3rd St
Shatto Pl
Vermont Ave
6th St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미라클 블레싱에 참여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주님의영광교회 '21일간 미라클 블레싱'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21일간의 '미라클 블레싱(Miracle Blessing)'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된 '미라클 블레싱'은 올해로 6년 째를 맞았다.

이 기도회에는 21일간 하루 평균 4백여 명, 연인원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기도회는 "기도함으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교회 측은 말했다.

신승훈 담임목사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행16:13~34) 주제의 13일 주일 말씀 선포에서 "바울이 실라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환경도 변화시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진정으로 믿고 감사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신 목사는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교회가 50개 국에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신 목사는 "무엇보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글로리 크리스천 스쿨'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됐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이인규 기자

한인 학부모들이 최근 화가 났던 순간과 자신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발표하는 모습.

한인가정상담소…제6회 분노조절 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는 22일 한인가정상담소 강당에서 제6회 분노조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여 명이 참석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쌓이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건강한 대화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날 강의를 맡은 안현미 카운슬러는 분노조절을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났음을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는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화가났는지 말로 표현하는 단계, 네 번째는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의 순서를 거쳤으나 계속 화가 날 경우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카운슬러는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원인은 대체로 욕구나 요구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평소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호흡이나 근육 이완운동 등을 연습해 두면 화가 나는 순간에 이를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대화법을 배우는 것도 분노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분노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대화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213-235-4848
*이메일: dkim@KFAMLA.org
*웹사이트: www.KFAMLA.org
*위치: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의나무 사역팀.

매일 체험하는 '오병이어 기적'

LA 노숙자와 빈곤층 섬기는 의의 나무 사역

화려한 LA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불과 몇 블럭만 더 동쪽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스키드 로우(Skid Row) 지역.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 LA에서도 '또' 가장 많은 노숙자가 이 스키드 로우를 집 삼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스키드 로우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숙자와 빈곤층을 섬기는 오병이어가 우뚝 서 있다. 2011년 이준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한 의의 나무 사역 가운데 LA에서 이뤄지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다.

오병이어는 다른 그 어떤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주 LA와 인근 지역의 약 1천 가정에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한 가정이 대략 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만 봐도 오병이어가 섬기는 사람의 수가 실로 엄청나다.

처음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당도 열었지만, 주변의 반대로 인해 4~5년 전쯤 안타깝게 중단됐다. 그러나 그 대신 음식을 들고 찾아가는 푸드 드라이브인 이 오병이어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리고 여전히 스키드 로우를 지키며 노숙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트레이더 조를 포함한 여러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후원받아 매일 오병이어 트럭에 가득 싣고 스키드 로우의 '아버지 창고'로 가져오면 오병이어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고 각 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순식간에 분류해야 해서 손길이 많이 가지만 다행히 여러 한인교회에서 매일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함께하는교회의 성도들이 방문해 돕는다. 트럭이 10시 30분쯤 아버지 창고로 들어오자 갑자기 이 교회 성도들도 창고로 몰려든다.

이 창고를 지키고 있는 케빈 김 전도사와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빠른 손놀림으로 음식 분류에 들어간다. 무거운 당근 박스도 번쩍 들고 뭉개진 바나나를 골라내는 데 주저함도 없다.

그렇게 해야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간신히 시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가 다 끝나면 다시 트럭에 싣고 이제 LA 곳곳으로 나간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오병이어는 음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오병이어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모여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병이어다.

또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기 때문에 오병이어다. 이 일만 해도 지칠 것 같은데 어디서 힘이 남아도는지 오히려 멕시코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준 목사는 이진 사모와 함께 브라질에 머물며 200명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됐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LA에서도 가장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그 기적을 매일 일으키고 있다.

*문의: 이준 목사
*전화: 818-303-6443
*이메일: milesofolive@yahoo.com

김준형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Merry Christmas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연합성가제
2016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 협의회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연합성가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연합성가제에는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소속 8개 교회 성가대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 그리고 은혜를
찬양으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이 금년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연합성가제에서는 일반 장학생과 신학교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참/가/교/회
선한목자연합성가대 선한목자교회 (지휘 : 정희숙)
선한청지기연합성가대 선한청지기교회 (지휘 : 이은정)
유니온연합성가대 유니온 교회 (지휘 : 이요셉)
샬롬찬양대 엠마오장로교회 (지휘 : 조창희)
연합성가대 글로벌선교교회 (지휘 : 강민석)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교회 (지휘 : 김도희)
하나로 찬양대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지휘 : 서건)
할렐루야성가대 할렐루야한인교회 (지휘 : 박정식)
일시 2016년 12월 4일(주일) 오후 4:40분
장소 할렐루야한인교회 본당 (담임 송재호 목사)
(19648 Camimo De Rosa Walnut, CA 91789)
*교회별 리허설은 2:20분부터 시작됩니다.
회장 : 송재호 목사 부회장 : 김신일 목사 총무 : 최준우 목사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2016 LA 선교의 밤이 20일 저녁 LA한인타운 옥스포드호텔에서 열렸다.

선한목자선교회(GSM)…LA선교의 밤

선한목자선교회(The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 대표 황선규 선교사) 2016 LA선교의 밤이 20일 오후 6시 LA한인타운 옥스포드호텔에서 이 지역 동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윤달호 장로의 환영사로 시작된 선교의 밤에서는 황 선교사의 아들이며 GSM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존 황이 직접 참가하여 GSM 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GSM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곽동원 선교사와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도 함께 참석하여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전했다.

한편 GSM은 "1:1동역 선교" 원칙하에 현재 70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지상전투와 마찬가지로 영적전쟁에 있어서도 전후방이 함께 연합해야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문의: 253-839-0425
253-653-6980(Cell)
*이메일:gsm3003@gmail.com

칼빈국제대학교 …초대총장 김연택 박사 취임

칼빈국제대학교 김연택 초대총장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개교한 칼빈국제대학교의 초대총장에 김연택 박사가 취임했다. 김 박사는 관동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런던 WEC선교대학원, 남가주 풀러신학교, 미시건주 칼빈신학교 등에서 공부했으며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

1975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오엠선교회 소속 로고스 호에 승선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16개국에서 선교했다. 남가주에서는 오렌지한인교회,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 남가주칼빈교회 등에서 목회했고 미시건 주 홀란드베다니교회와 네덜란드 헤이그국제교회에서도 목회했다. 칼빈신학교와 네덜란드 틴데일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한 경험도 있다.

19일 오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린 취임감사예배에서는 쉐퍼드대학교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명예총장이 설교했고 서정운 전 장신대 총장, 알린 신 윌리엄캐리대학교 학감, 김근수 미주총신대 총장 등 한인 신학교육자들이 직접 혹은 서면으로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예배 후에는 김연택 박사의 신간 "내 영혼아 깨어라"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칼빈국제대학교는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 평신도 리더를 교육하기 위해 남가주 브레아 시에 설립됐으며 M.Div., M.A., D.Min. 과정을 둔다. 오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새들백교회에서 김연택 박사와 대니 다니엘 목사가 새들백교회와 전도사역, 21세기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개교 공개 강좌를 열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15일~19일까지 남가주벧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 본지 이사장)에서 열린 특별새벽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관련기사 1면 참조).

"갖지 말고 나눠주는 추수감사절"

새언약기독교학교…특별한 추수감사예배 드려

올해로 개교 18주년을 맞이한 새언약기독교학교(NCA)가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18일 학교 채플실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은 300여 명의 재학생과 학부모, 친지들을 초대해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제이슨 송 교장은 "학부모들이 1년에 하루만큼은 선생님과 학생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벌써 18년째를 맞이했다"면서 "올해도 학부모회와 선생님뿐 아니라 재학생들도 섬김과 나눔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각 학년별로 준비한 워십 공연과 핸드벨 합주,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뤄졌다.

한편 재학생들이 모은 1,250개의 캔은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단체인 '유니온 레스큐'(UNION RESCUE MISSION)에 보내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은 펀드 1,500여 달러는 프랭클린 재단을 통해 염소 20마리 구입해 아프리카에 보내게 된다. 송 교장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염소는 어려운 가정을 자립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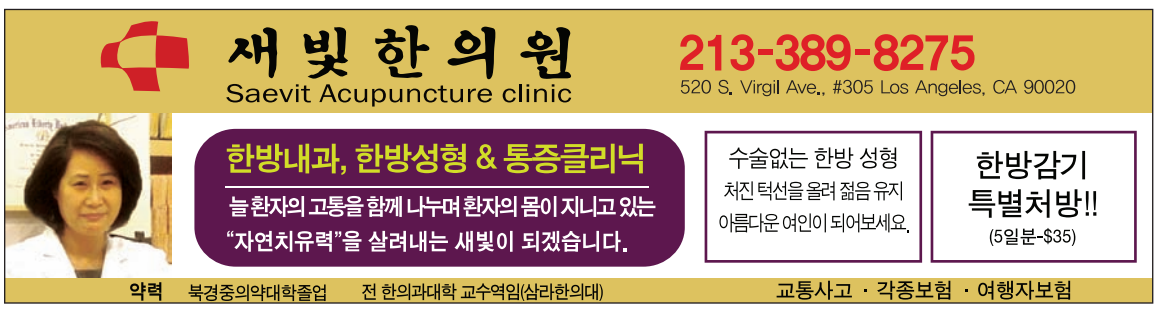
이인규 기자

새언약기독교학교(교장 제이슨 송) 추수감사예배 및 페스티벌.

"LA사랑의교회 창립10주년 감사 음악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창립10주년 기념 감사 음학회를 연다. 특별히 故김홍전 목사 오라토리오 '루디아'를 미주 초연한다.

*일시: 12월 3일(토) 저녁 7시
*주소: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문의: 213-386-2233



RCA퀸즈노회, 첫 한인여성 노회장 '화합' 이끌어

나영애 목사 노회장 임직 후
노회 내 화합 모드 이어져

RCA 퀸즈노회 첫 한인여성 노회장으로 나영애 목사가 임직한 이후 퀸즈노회 내에 긍정적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히스패닉교회에서 열린 페드로 아구델로 목사의 안수식 후 퀸즈노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한 모습.

미국개혁장로교회(RCA) 퀸즈노회에 첫 한인여성 노회장이 세워진 이후 퀸즈노회 내에 노회원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신설되는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퀸즈노회장인 나영애 목사(포레스트팍개혁장로교회 담임)는 지난 10월18일 노회장으로 임직한 이후 줄곧 분쟁이 있는 교회를 찾아 중재해 왔으며 6일과 13일에는 미국인 중국선교사를 파송하고 히스패닉 목회자를 세우는 등 건설적인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년간 RCA 뉴욕지역 내에서 EM권 사역을 해왔던 나영애 목사는 첫 한인여성 퀸즈노회장으로써 노회 내 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가운데 나영애 목사는 분쟁이 발생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 하면서 중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 양측을 화해시키고 있다. 나영애 목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깊은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어느덧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퀸즈노회 내에 회원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생겼다는 점이다.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많았던 퀸즈노회가 기도모임이 도입된 이후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영애 목사는 "서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퀸즈노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6일과 13일에는 연속으로 노회 내에 중요한 선교사와 목회자를 세우는 발전적인 행사가 이어졌다.

6일에는 백인 중국선교사가 퀸즈노회의 파송을 받는 파송식이 퀸즈노회 주관으로 있었으며 13일은 히스패닉 교회인 'Iglesia de Cristo la Roca'에서 페드로 아구델로 목사의 안수 및 임직식이 있었다.

페드로 목사는 안수식이 진행된 장소인 히스패닉교회'Iglesia de Cristo la Roca'에서 담임을 맡게 된다.

13일 진행된 페드로 목사의 안수 및 임직식에는 한인교회 성악가 연주가들이 참여해 행사를 축하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다.

이날 나영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회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린다"면서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노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애 목사는 뉴브런스윅 신학교(NBTS)를 1989년에 졸업했으며 1999년 9월 R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뉴욕기독일보]

여호와의 집에 숨겨진 '종려나무'가 되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주최
제5회 시니어 컨퍼런스

시니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주최 '제5회 시니어 컨퍼런스'가 '빛이 청청하니'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열렸다.

시니어컨퍼런스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틀랜타의 모든 시니어들이 영적 리더이자 영적 멘토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많은 시니어들의 사랑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1부 오프닝 공연, 찬양과 경배, 말씀에 이어 제2부 마술과 함께 하나되는 시간, 시니어 인터뷰 및 비전토크, 시와 음악, 시니어 비전 나누기,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촬영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학창시절 교복을 착용해 함께 추억을 더듬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근 시니어사역위원장은 "고국과 미국에 대한 우려는 잠시 뒤로하고 지나간 추억을 함께 공유하며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심우진 목사는 "컨퍼런스를 통해 시니어 사역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 되새기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성목사(조지아크리스찬대학 교수)는 '시니어의 축복과 사명'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니어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연들, 아픔의 기억들을 통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틀란타 윤수영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조동혁 박사 칼럼 10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골다공증(약의 치료와 부작용)

TV를 시청하다 보면 어떤 약들을 먹고 문제가 있었다면 몇 백만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하라는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많이 쓰이는 약일수록 이런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처방약의 부작용을 보다보면 도저히 치료약이라고 믿을 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몇 페이지씩 나열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처방약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경고문으로 쓰여져 있다보니 일반인들은 그 약을 먹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보는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처방된 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의사들이 우려하는 병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결국 이런 정보속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점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려 한다. 오늘은 이런 경우가 잦은 질병 중 하나인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넘어지거나 추락 후 골반의 골절(pelvic fracture) 또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넘어진 환자가 골다공증이 없었다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골절은 일어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 부위가 부러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심하지 않은 낙상에서도 골절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가 자녀를 부축하다가 같이 쓰러지면서 척추가 골절되어 입원한 경우가 있었다. 그 전의 의사로부터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환자의 친구들로부터 골다공증약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그 의사의 진단과 치료조언은 무시되었고, 의료인이 아닌 친구가 치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척추골절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 환자는 수술 후 회복되긴 했지만, 자칫 하반신마비로 평생을 침대에 누워살아야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 예방의학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건강검진으로 실행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식을 한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률은 높아진다. 필자는 내과 주치의이며 신장내과 전문의이기에 골다공증 환자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는 영어로는 bone density scan 또는 덱사스켄(DEXA scan)이라고도 불린다.

T-스코어로 -1에서 -2.5까지는 골다공증 전단계이고, -2.5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는다.

만성신부전, 류마치스관절염, 이른 폐경,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으로 인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복용, 갑상선약 복용,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 등은 골다공증이 걸릴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지거나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칼슘과 비타민 D의 복용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50세를 넘어가는 여성이라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기를 권장한다.

건강한 51세 이상의 여성은 하루 1,200mg의 칼슘과 하루 600IU의 비타민 D를 복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성인에서 비타민 D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비타민 D의 수치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처방받아야 한다.

골다공증의 치료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이다.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의 약간 빠른 걷기 운동은 골반골절의 위험도를 41%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요가, 댄싱, 등산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도 운동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골프, 카트 대신 걸으면서 하는 골프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의 약물치료다. 물론 골다공증약들에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의사들이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가 골다공증약을 처방할 때는 그 부작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척추나 골반의 골절로 인해 환자가 하반신마비 등으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유

마태복음 13:3-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은 복음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가리워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알게 해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논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 단단해진 길 위에 제대로 묻혀 싹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즉시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 틈새에 흙이 조금씩 끼어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흙이 너무 얇아서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지만 가시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영양분도 흡수 못하게 하고, 태양도 가려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시멘트 바닥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누군가 무엇을 주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마귀에게 즉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응어리진 심령으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한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예민하며 모든 불행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 시비하며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을 찔러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거져 있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상하고 찌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싹은 틔울 수 있지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아스팔트 같은 굳은 땅을 파서 일구었고 덩어리도 깨뜨리고 돌도 추려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뿌리 채 다 뽑아내 던져 버리고 좋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풍기며 열매도 영글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온전하게 한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잘 가꾼 사람은 백 배의 결실을 이루어 드렸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믿음이 너무나 지극정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백 배의 전도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믿음이 바로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다 뽑아 내버려야 하는데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그 뿌리가 남아 있다가 또 가시가 돋고 뻗어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실이 각각 다른 것은 모두가 회개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생활을 힘썼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변에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11:36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즉 누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받은 자들은 이 비유가 깨달아져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소망이 구원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생명과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 주신 영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이득까지 그들의 몫이 되고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든 사람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처럼 덤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는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는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담대히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쳐서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눈이 멀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마음이 둔탁해지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값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벌과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런 역할을 어느 때까지 해야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사6:11~12)"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저들이 살던 집은 빈집이 되며,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애간장을 태우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며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300만이었다면 3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던지 혹은 먼 나라로 도망을 갔던지간에 죽지 않도록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나무를 잘라내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과 같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될 것이며 그 싹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라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귀찮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앗수르에게 가혹하게 짓밟힘 당하고 그 이후 바벨론에게 70년간 착취와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6~17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충분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며 세상 허욕을 좇아 불의와 죄악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는 직분을 내세우고 섬기기를 애쓰기 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지금의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점점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참 목자들도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이사야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이같은 신앙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지를 잘라 그루터기만 남게 하셨듯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가 생명의 싹으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피아노 반주자 모집

주님세운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주일 2부예배(오전 11시) 및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제출방법 – 서류를 jscoffice0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6년 11월 30일(수)

문 의 주님세운교회 사무실 310-325-4020
행정담당 신상희 목사 909-282-2513

해외한인 장로회 **주님세운교회**
Junimseun Church of KPCA
담임목사 박성규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송재호 칼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레23:10~21)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의 신대륙 정착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에 의하면 1620년 영국에 국교의 종교 박해를 피해 청교도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0여 일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상륙하게 된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고 그중 겨우 51명의 청교도들(The puritans)만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21년 정착한 땅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 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순간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에서의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할 것을 요청함에서 시작되었다. 구약에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 추수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바쳐라"(레23:10)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원형적 의미이다. 이 의미는 바로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의 열매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기쁨' 으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날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비와 공기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것이다.

벌써 2016년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그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지금도 힘들고, 걱정되고, 심지어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함께 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반대시위가 계속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무엇이 감사할 제목들일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하기 보다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참된 감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올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분명 이러한 우리의 감사의 노력이 더욱 풍요와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따른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토마스 아 켐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을 감사로 보았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qn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감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감사한다. 겸손한 사람은 늘 '과분해' 한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족한다. 더 높은 것이나, 더 많은 것을 탐하기 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줄 안다.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ank'이다. 'thank'라는 말은 그 어원이 'think'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감사는 생각을 통해 온다. 생각이란 깨달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것이 많다. 추수감사절은 깊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반면에 질투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지지만 질투하면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난다.

셋째,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지혜는 분별을 통해 올바른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평을 선택한다.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까닭은 불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감사를 선택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동을 준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감사하면 최상의 것이 찾아온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넷째,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억울한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에 순종해 보자. 그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는 가를 지켜보자. 바울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했다. 항상 감사했다(엡5:20). 그가 에베소교회에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성경 속 인물들은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않았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들은 고난마저도 감사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우리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감사는 영적 건강의 온도계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많은 우편물이 집에 도착하는 시기이다. 그중 친구가 보낸 선물권은 친구의 사랑이 베푼 일종의 값없는 은총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친구와 성도를 통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어린 선물은 사실상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재자로서 인간을 향한 무수한 은총을 허락하신다. 태양과 공기, 나무와 바람과 별과 시내, 단풍과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선물과 건강을 생각하면 거의 중요한 것 모두가 값없이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40대 만성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환자는 자기의 소화불량 원인을 세상 탓으로 돌렸다. 거의 모든 일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 탓이었고, 우울증은 2년이 지나도록 별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상담을 하러 오면서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른 선배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트 펙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축하할 일이요. 당신 환자는 이제 반 이상 치료되었소" 이 의사의 예상은 적중했다. 몇 달이 지나서 이 환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과 환경으로부터 놓여나서 고마움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은 즐거움과 감사를 표현한다. 행운이나 불행, 혹은 순경(順境)이나 역경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온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한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심지어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한다.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셉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 다윗의 광야의 삶은 미래 궁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감사는 영적 온도계이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모든 음식에 감사하자. 건강에 감사하자. 영적인 귀와 눈을 주심에 감사하자. 미래 천국에 감사하자. 현재 행복에 감사하자. 예배할 교회당과 즐거운 공동체에 감사하자.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까지 함께하심을 감사하자. 절묘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자.

추수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7:1)

Thanks Giving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www.cornerstonetv.com

Thanks Giving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07:1)

lafgc.com

진유철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영광교회

xe.gcjc.org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전도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새신자, 세상의 말 아닌 '원초적 복음' 듣길 원한다

예장 합동, '새신자 정착' 주제로 전도정책포럼 개최

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전도법인국이 '새신자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1일 서울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01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총회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설교한 개회예배에 이은 총회전도법인국의 주제강의, 소강석(새에덴교회)·장창수(대구대명교회)·오종향(뉴시티교회)·오주환(예안교회) 목사·강명옥 전도사(사랑의교회)의 강의, 어린이부·청소년부·청년부로 나뉜 선택강의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강의에서 총회전도법인국은 여러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교회는 여전히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고, 새신자 정착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새신자 정착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들로 크게 △새신자에 대한 사랑 △체계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 △정착을 위한 전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새신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등록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등록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신자의 마음은 극도로 불편해진다"고 했다. 또 "둘째, 교회가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새신자 정착은 일부 새신자 사역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후속적인 양육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령 새신자 사역이 지나치게 교역자 중심인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지속적인 돌봄과 섬김을 위한 관계망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은사에 따른 사역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신자의 정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새에덴교회의 새신자 정착 시스템을 소개한 소강석 목사는 특히 평신도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에덴교회 내 평신도사역개발원의 이경희 전도사가 설명했다.

새에덴교회의 평신도 관리는 새신자가 등록하면 직접 전화심방을 한다. 그리고 새신자 담당 목사, 교구 사역자, 양육교사 등이 함께 심방을 해 양육시간을 결정하면 집으로 직접 방문거나 교회에서 1:1 양육을 시작한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장창수 목사는 '새신자 정착을 위한 아날로그 목회-바로 가고 거꾸로 가라'는 제목으로 새신자 정착의 중요성과 전략 등을 나눴다. 그는 "모든 새신자 정착 전략은 주일예배로 집중돼야 한다"며 "주일예배는 새신자가 교회 생활의 첫발을 딛는 장인 동시에 새신자들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장"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대부분의 새신자는 절대로 한 번 출석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여러 번에 걸쳐 주일예배를 참석하며 최종 결정을 한다"며 "그들은 정착 동기에 대해 주일예배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평안함, 위로, 소망, 신비, 경경함, 따뜻함-혹은 은혜의 체험이라고 한다. 절대 가볍지 않은 경건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예배의 분위기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복음화율 3.8%…한국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

상계교회 서길원 목사, 한국교회 미래 위해 다음세대 사역 강조.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 중 7만6천 명, 그러니까 3.8%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대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교회 서길원 목사의 탄식이다. 그는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게 서 목사의 믿음이기도 하다.

서 목사는 "전국 학교에 기도모임이 325개나 있다고 한다.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두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남겨진 아이들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기도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면 그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계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청기캠)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심고 있다. 서 목사는 "캠프 때마다 12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며 "그들이 이를 발판 삼아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꿈은 지난 1974년 우리나라에 대부흥을 가져온 '엑스플로 74 대회'처럼, 10만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이다. 서 목사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힘들더라도 꾸준히 청소년 사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길원 목사는 최근 「다시 교회가 뛴다」(넥서스CROSS)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얼마 전 이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1백만 명이 회심하면서 한 시대를 바꾼 웨일스의 부흥이 청년 광부 1명에서 시작됐듯, 이 책이 10만 명의 영혼들에게 읽혀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갑자기 올 수 있는 통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주승현 박사
통일부 통일교원 강사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모인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소장 임희국 교수)가 18일 오후 장신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란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도둑' 같이 올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주승현 박사(명지대 서울신대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원 강사)는 "북한인권 문제와 통일의 상관성"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동안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우려와 노력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올해 3월에 한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당국에게는 심각한 체제붕괴를 고민하게 하는 딜레마가 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경고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추가적인 인건침해를 억제하고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제도가 된다"고 평가했다.

주 박사는 "열악하고도 심각한 북한인권의 실태와 북한내부의 불안정성이 긴박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인권상황의 개선 촉구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로 인해 대두될 포괄적인 상황들, 예기치 않은 사태나 통일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비책까지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조은식 기자

"올바른 예배찬양 회복을 위해 찬양신학 정립 필요"

김은희 교수
햇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누리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예배 찬양신학 없이 예배를 드려왔다면서, 예배찬송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정립하고자 노력한 논문이 발표됐다.

19일 낮 목양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예배찬양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은희 교수(햇불트리니티대학)는 "한국교회 예배찬양의 올바른 사용방안 연구와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예배찬양의 올바른 사용방안과 모범 예배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가 올바른 예배찬양의 회복을 위해 먼저 "찬양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배찬양에 성경적인 찬양, 즉 시편 찬양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배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면서 "예배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고귀함과 진실됨의 성품을 드러내는 곡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학교육에서도 찬송가학과 예배음악의 이론과 실제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학교육에서 찬송신학이 부재해 한국교회 예배 방향성의 위기를 가증시키고 있다"고 했다.

홍은혜 기자

연설 중인 닉 부이치치 ⓒ 크리스천포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발견하길

사지없는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재소자들에게 소망 전해

'사지 없는' 복음전도자 닉 부이치치(Nick Vujicic)가 미국 전역의 수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 단체인 '사지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은 수감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영상으로 녹음해 병원이나 학교의 목회자들, 봉사자들이 성경공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사지없는 삶' 사역팀은 지난 21일 닉 부이치치의 페이스북에 "최근까지 우리는 21개 주 출신의 601명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 관심을 보인 8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닉 부이치치는 그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다. 또한 많은 재소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텍사스 뉴보스턴의 텔포드유닛 교도소에서 메시지를 전한 부이치치는 "여러분이 보는 것 너머에 소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사지가 없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리나 절대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길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그 재소자는 내게 '간수는 매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지만 그는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유하지 않다. 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유하다'고 말해주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부이치치는 유럽 여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여행 중 유럽 정상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당시 부이치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밤 강당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60%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믿을 수 없다. 현지 매체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도 연설할 계획"이라고 남겼다.

강혜진 기자

동성결혼식 꽃 판매 거부로 벌금형 받아

워싱턴 주에서 꽃집 운영하는 바로넬 스터츠만 여사…기독교인들 적극 응원

美 워싱턴 주 리치랜드에서 '알린플라워'(Arlene's Flowers)라는 꽃집을 운영 중인 바로넬 스터츠만 여사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될 꽃 판매를 거부해 벌금형을 받게 된 가운데 17일 상소심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300명 이상의 기독교인으로부터 응원을 받아 화제다.

최근 英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그 당시 3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순백의 꽃을 들고 나타나 "자유를 꽃피우자", "바로넬 여사를 위한 정의" 등을 외치며 스터츠만 여사를 응원했다.

또한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까지 발걸음을 재촉한 지지자 중 한 명인 워싱턴보수여성연맹 조진 패리스(Georgene Faris) 회장은 "종교적 자유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패리스 회장은 "나는 타인에 대한 증오나 편견이 있지 않고, 개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며 "증오나 편견은 사실왜곡이고 거짓과 같다"고 전했다.

한편 스터츠만 여사는 지난 2013년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과 커트 프리드(Curt Freed) 게이커플의 결혼식에 꽃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001달러(한화 약 11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스터츠만 여사는 하급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정부는 내게 한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 신앙과 자유를 포기하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미국 헌법은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전체의 자유를 말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내게 할 일과 믿어야 하는 것 등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자유국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美성공회신학교 전경.

美성공회신학교…재정난으로 학위 발급 중단 예정

지난 7월 메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성공회신학교(Episcopal Divinity School, EDS)가 2016~2017년 학기를 끝으로 학위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공회신학교는 최근 후원자들과 캠퍼스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에게 신학교의 순자산이 지난 수년 간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회신학교의 순자산은 지난 회계년도에 약 760만 달러(11%) 감소했다. 2015년에는 650만 달러(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성공회신학교의 자산과 사명의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우리는 이같은 손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회계년도까지 더욱 안정적이고 신중한 미래를 위해 배가의 헌신을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다.

성공회신학교 신탁이사회 게리 홀 이사장과 캐논 보니 앤더슨 부이사장 명의로 된 공문에서, 학교 측은 내년 5월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23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업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제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비자에 문제가 없도록 이민 관련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홀 이사장은 "최근 학교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0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8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미얀마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 '러브조이피스페스티벌'에 참석한 아이 두 명이 기도를 받고 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캡처

미얀마서 수천 명 하나님 품으로

인구의 90%가 불교도…5만 명 모인 기독교 집회 통해 수천 명 회심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기독교 페스티벌이 개최된 가운데 수천 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최근 英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기간 미얀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러브조이피스페스티벌에는 5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 페스티벌을 찾아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의 비유'를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축하해주시고, 즉각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다"고 말했다.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미얀마 인구수는 5,000여 명에 달한다. 첫날에는 2,500명 이상, 둘째 날에는 2,4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페스티벌에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감사하다.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 pixabay 제공

남수단, 아사 직전 인구 4백만 이상

극심한 인플레이션 영향…기독교 단체들의 도움과 간절한 기도 절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남수단의 인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700%를 기록한 가운데 아사 직전의 인구 수가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유럽연합(UN)이 지난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인 남수단에서 내전과 대량학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기독교 단체들은 남수단과 그 국민에 대한 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UN 측은 "남수단에서 전면적인 민족전쟁이 발발해 대량학살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수단은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내전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수만 명이 사망했고, 2,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일랜드선교협의회(Ireland's Global Mission Council) 소속 레브 리즈 휴즈(Rev Liz Hughes) 장로회 의장은 남수단 구호팀의 말을 인용해 남수단 내 딩카족과 누에르족의 충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소식을 전했다.

휴즈 의장은 "식량 원조가 필요한 인구수는 4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향후 몇 년간 경작은 힘들고, 경제침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수단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도적 지원과 식량 원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일랜드교회는 남수단장로교를 통해 현지 기독교인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다. 휴즈 의장은 "남수단장로교가 남수단 국민을 도울 수 있는 힘은 많은 이들의 기도이다. 남수단 평화와 이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며 "우리와 협력하는 국제구호기관 크리스천에이드와 티어펀드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동성애 반대' 입장 고수해야

英성공회 메이드스톤 주교…불이익 받더라도 동성애 반대해야

메이드스톤 주교

ⓒ메이드스톤 주교 공식홈페이지

로드 토마스(Rt Rev Rod Thomas) 메이드스톤 주교는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 CofE)가 신학과 성장의 유대관계에서 상식적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며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고 최근 英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보수파인 토마스 주교는 성도를 늘리는 전통적 가르침을 제안하는 한 연구조사를 옹호하며 영국 국교회에 "자선사업을 주도하는 교회로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동성애 반대입장을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성경의 무과실성, 여성 목사, 동성결혼 문제를 엄격히 다룬 교회는 예배참석 인원이 매년 3~4% 늘어난 반면, 영국성공회는 참석인원 수가 매년 1~2% 줄어들었다.

토마스 주교는 "이 연구결과는 영국성공회가 복음의 진실성을 알리는 교회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회자 재편성과 교육혁명에 관심을 두기보다 신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의 믿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와 구분될 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 문화의 표준과 가치를 재생산하는 기독교는 엉뚱한 길을 걷게 된다"며 "영국성공회가 성(性)에 있어 진보적 태도를 취한다면, 역사적 가르침과 다수의 성공회 연합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소라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현장. ⓒ오픈도어선교회

'테러'에 노출된 나이지리아 교회들

나이지리아 마이구두리에 소재한 한 교회의 성도를 상대로 자폭테러를 계획했던 용의자들이 붙잡혔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용의자 2명은 자폭테러로 숨졌으며, 1명의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세인트힐러리 가톨릭교회 성도들은 18일 오전 미사를 위해 예배처에 모였다. 이 교회는 마이구두리 교단에 속한 신부의 사택 근처에 위치해있다.

보안군은 현지 매체인 네이션(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 현장에서 폭탄을 터뜨린 이들이 자폭 테러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빅토르 이수쿠 보르노주 경찰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새벽 3시 50분 경, 연방법원 맞은 편에서 경비를 보던 경찰관이 3명의 자폭테러 용의자(여성 1명, 남성 2명)들이 샌드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수쿠 대변인은 "경찰이 이들을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몸에 있던 폭발물을 터뜨려 자폭했다. 폭발로 옆에 있던 남성 용의자가 사망했고, 여성 생존자는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추가적인 테러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군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보르노주는 2009년부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보코하람의 표적이 되어 왔다.

지난 2013년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100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마이구두리 교단을 떠났고, 350여 개 교회들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UN은 보코하람으로 인한 기아로 나이지리아의 약 75,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보코하람을 뿌리뽑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영역은 복구된 상태이나 아직도 260만 명의 사람들이 거처를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강혜진 기자

'가톨릭 인구 95%' 폴란드…그리스도를 국왕으로 인정?

가톨릭 인구가 95%에 달하는 폴란드가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국왕으로 받아들였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올해 기독교 역사 1,050주년을 맞이한 폴란드는 19일 크라쿠프에 소재한 '신의은총의교회(Church of Divine Mercy)'에서 이를 공표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날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 국민과 리더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그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삼위일체의 더 위대한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폴란드 국민과 국가, 다른 나라들을 통치해 달라"고 간구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폴란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노력은 20세기 초 시작됐다. 폴란드 간호사였던 로잘리아(Rosalia)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지난 2006년 폴란드 보수파 하원의원도 이 운동에 합류했으나, 교회에서 반발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폴란드 주교단 멤버이자 크라쿠프교황신학교(Krakow's Papal Academy of Theology) 교구 목사였던 타데우시(Tadeusz)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 왕이란 것은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박소라 기자

'보수적 신앙' 교회가 성장 가능성 더 커

캐나다 교회·목회자 대상 연구서…전도·성경 읽기 등에 집중

"만약 우리가 개신교회 가운데 어떤 신학 체계가 교인 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에 관해 말하자면, 보수 개신교 신학이 분명히 승자다"라고 데이빗 하스켈 교수가 말했다.

데이비드 하스켈 교수는 '신학 문제: 주류 개신교단 출석률의 성장과 감소 추적 비교'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재한 2,225개 교회와 29명의 목회자들, 195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하스켈 교수는 주류 교단 중 성장하는 교회와 하락하는 교회의 출석률을 비교했다.

하스켈 교수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경우, 기독교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신념을 확고히 했으며, 기도 및 성경 읽기와 같은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연구의 결과가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연구는 저널 '리뷰 릴리저스 리서치'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보고서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하락하는 교회의 목회자 절반 만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하는 목회자들은 10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 71%는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했다. 반면 하락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경우 19%만이 그랬다. 또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의 100%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동의했으나 하락하는 교회의 경우, 이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41%에 불과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2014년 일반사회조사(GSS)에 따르면, 신학의 경우,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 가운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정의하는 이들보다 보수적이라고 정의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바나연구소의 조사결과, 새천년 세대의 67%가 '유행하는 형식'의 예배보다 '전통적인'예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원했다.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RD) 제프 왈튼은 2015년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가르침과 정통 신학은 자체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회과학자들은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단체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다"고 했다.

또 "현재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교회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 즉 회개, 전환, 새로운 삶 등을 교회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섭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겨울특선 1
북해도 7일
北海道 온천+동경까지
1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인솔자 동행
2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리필 특선!
▶2/15 $2,999

겨울특선 2
퀘벡 5일
나이아가라 폭포+스키
1 북미의 잉글랜드,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2 와이너리 투어
▶12/16,23,30 1/13,20,27 $1,399

겨울특선 3
오로라 5일
알래스카 기차여행
▶목요일 (12/1 부터) $1,300+항공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푸른투어 단독계약!
옴니 칸쿤 - 오션뷰 보장!
악어사파리 투어
최상급 SHB등급 코스타리카 커피

에메랄드바다의 옴니 리조트와 함께하는
치첸이사&칸쿤 4일
▶1차 특별출발 : 1월 16일
▶2차 특별출발 : 2월 13일
$1,199 +항공포함
5성급 올인클루시브 가족형 호텔
올인클루시브(무제한 식사/음료/주류 모두포함)
3박+공항 왕복서비스+치첸이사 투어(한국인 가이드)

중미의 진주~ 가족여행을 떠나보세요~
청정 코스타리카 5일
$1,499 → $1,399 +항공포함
▶특별출발 : 1/23
코스타리카 3박4일 ▶12/20 $920 +항공
코스타리카 4박5일 ▶12/21,22,23 $1,030 +항공
아레날 화산 / 따바콘 노천 온천욕을 즐기세요
▶ 4명 이상 출발 가능 / 그외 날짜 문의

아시아
아시아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홍콩	4일	-방콕/파타야	5일
-앙코르왓	5일	-대만	4일
-싱가폴	5일	-싱가폴/바탐	5일
-푸켓	5일	-세부	5일
-발리	5일	-코타키나발루	5일
-동남아 일주(홍콩/방콕/싱가폴)	9일		
-하롱베이/앙코르왓	6일		
-하롱베이/하노이	5일		

중국
중국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북경	4일	-계림	5일
-장가계	5일	-서안	4일
-항주/서당/상해	4일	-중국일주	11일
-북경/계림/장가계/서안	8일		
-계림/장가계/서안	6일		
-계림/장가계/서안/항주/상해	9일		

크루즈
피지/호주/뉴질랜드 환상 크루즈 18일
▶2/19 $4,599
- 천혜의 휴양지 남태평양 파라다이스 피지와 뉴질랜드 남북섬, 호주로 이어지는 환상의 크루즈 여행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화/토 출발	$689

"업계유일~! 재학생 입학정보안내"
명품 IVY 리그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미서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 / 토		

고객감사 단 4회 한정 특가!
세도나 3일 ▶11/28 [단4회] $149
[세도나 트롤리/슬라이드 락 선택가능] 12/5, 12, 19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 / 성요셉 성당 / 노틀담 드캅 성당 / 몽모렌시 폭포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3)

쿰란…광야의 외치는 자들의 소리(下)

◈발굴된 사본들

이곳에서 발견된 문서로는 공동생활의 규칙, 말세론, 금욕주의, 에스더서를 뺀 모든 구약의 사본들이 흩어져 있던 39개의 동굴에서 발견됐다.

사해 문서(Dead Sea Scrolls, DSS),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 사본은 히브리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을 아우른다.

1947년에서 1956년경까지 사해 서쪽 둑에 있는 와디 쿰란(사해의 북서쪽 해변에 있는 고대 키르벳 쿰란 근처) 주변과 11개의 동굴들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의 연대는 기원후 100년 이내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종교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서는 예루살렘 박물관의 성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탄소 측정법과 문서에 대한 분석, 글씨체에 의해 사해 문서들은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지자 이사야 문서는 기원전 335년에서 기원 후 107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한다.

사해 사본 이외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이집트의 Nash 파피루스 정도가 이에 비견할 만한 오래된 순서였다. 비슷하게 쓰인 문서들이 근처, 특히 마사다 요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일부 문서는 파피루스에 쓰여 있고, 많은 문서들이 갈색 동물 가죽 위에 쓰여 있다. 탄소 계열의 재료로 만들어진 잉크로 새의 깃털 촉으로 쓰였다. "구리 두루마리"라 이름 붙인 문서는 종이처럼 얇은 구리판에 기록되어 있다.

사해 문서 가운데 80%~ 85%는 각각 고전(또는 성서) 히브리어, 사해 문서 히브리어와 원시 탄 나이트 히브리어로 불리는 3개의 히브리어 방언들로 쓰였다. 일부 문서는 아람어와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이기도 했다.

◈동굴과 주거지

성전 문서가 제11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가장 긴 두루마리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길이는 8.148미터이다.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원래의 길이는 8.75미터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발견은 1951~1956년의 최근의 일이며 폐허속의 주 건물은 폭 27미터 길이 44미터 정도로써 석고가 거칠게 발라져 있는 큰 돌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쪽에는 수비 탑이 있으며 부엌과 붙어있는 식당에서는 1,000여 점의 토기가 발견되었다. 주 건물 주변에는 옹기장이집, 방앗간, 염색집, 7개의 저수 탱크 등이 발견되었으며, 의자, 책상, 말라버린 잉크가 담겨진 잉크 스텐드가 있는 기록실이 발견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쿰란 주변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 가운데 두루마리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불과 10개이며 나머지는 수없이 많은 조각들로 발굴되었다. 이들 중 약 1/4이 구약사본이며, 나머지는 구약주석, 신학서, 쿰란 공동체의 규율집들로서 대부분 양피가죽이나 파리루그위에 고대 히브리어로 적어 놓은 것들이다. 사해구약사본은 현존하는 구약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에스더서만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쿰란의 오늘날

오늘날 순례객들이 주로 보는 동굴들은 39개 이상의 동굴 중 4동굴(길이 약 10미터)이라고 이름이 붙은 곳이다. 이 동굴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발견되었다(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책의 전당이라는 곳에 전시되어있다).

속속들이 발견된 문서들에 의해 쿰란 공동체에 대한 것이 밝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구약 사본들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어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보배를 감춘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보배보다 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계통의 사본(기원 후 11세기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쿰란 사본들은 1005년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원본과 가장 가까운 사본인 것이다.

이곳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이곳을 처음 발굴한 수케닉 교수가 두루마리 중 하나를 베들레헴에 가지고 가서 보관하였다 한다. 하지만 보관된 사본은 2주만에 썩어 버렸다고 한다. 2000년을 버텨왔던 사본이 단지 2주만에 썩어버린 것은 환경의 차이다.

쿰란이 위치한 사해 지역은 해저 405미터이고 베들레헴은 해발 800미터 지역이다. 쿰란은 광야로서 보잘것 없는 곳이었지만 성경을 보존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고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빵집이었지만 성경을 보관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나님은 광야의 외치는 자들을 통해 쿰란에서 구약을 필사하게 하셨고, 2000년을 보관케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성경의 보존술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성경을 후세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실 날이 오는 것이다.

광야의 외치는 자들을 오늘도 쿰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 사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순례객들은 4동굴 앞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자' 찬송을 부르면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자던 다짐을 무너뜨리고 진흙팩과 크림들을 사기 위해 정신없다. 한순간에 빛의 사자들이 어두움의 자식들이 되고 있다.

역사적 아이러니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다.

◈성경의 번역과정

구약은 히브리어와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은 헬라어와 일부에서 아람어가 발견되어진다.

바벨론 포로 이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당시 지배 언어인 헬라어로의 번역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전 2세기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나왔다.

한편 유대인들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구약이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주후 2세기에 등장한 아람어 탈굼이다. 이 시기에 헬라어로 된 신약이 수리아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약이 라틴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AD 400년에 제롬이 교황의 위임을 받아 신, 구약을 라틴어(벌게이트역: 공통이라는 뜻)로 번역하였고 이 성경이 중세교회의 공식성경이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약 3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주후 7세기에 고대 영어본이 나왔다.

14세기에 위클리프는 중세 영어로 성경 전체를 처음으로 번역하였다. 1611년에 킹 제임스판이 출간되었고, 잇따라 RSV, NASB, NIV, NEB등이 나왔다. 1534년 루터에 의해 현대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그후 19세기에는 선교의 관심과 함께 성경이 선교지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1823년에 중국어 완역판이 모리슨에 의해 이루어졌고, 1879년 브라운에 의해 신약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1887년 존 로스에 의해 신약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1906년에 가서야 성서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신약전서가 나왔다. 1910년에 구약이 이어 번역되었고, 1911년에 신, 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출간되었다. 1937년 전면 개정되어 나온 성경이 "개역성경"이다. 현재는 현대인의 성경 등 새로운 물결을 타고 성경이 젊은 언어, 현대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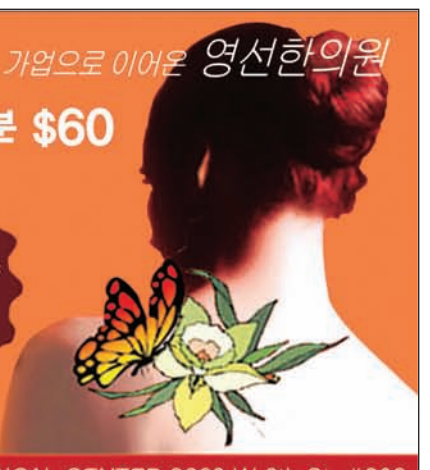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 산소 ▸ 수소 활성 산소 ▸ H_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 이장렬 칼럼

삭개오의 복음(5)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모든 것이 은혜다.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명명하신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

많은 학자들은 "인자"라는 호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니엘서 7:13~14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본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7:13~14).

다니엘7:13~14절에 따르면 "인자 같은 이"는 모든 이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며 그의 권세는 영원무궁하다. 그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인자 같은 이"에 관해 일종의 반전을 보여준다. 누가복음19:10의 "인자"는 섬김을 받는 대신, 잃어버린 자를 직접 찾아 나서 구원하시는 섬김의 종이다(막10:45 참조). 그리고 그 인자는 며칠 후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그 섬김을 완성하실 것이다. 누가복음19:10은 인자가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적 권세를 삭개오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치 않으시고, 그를 찾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하실 수 있다고 선포했던 대로(눅3:8 참조), 인자이신 예수님은 돌처럼 생명없는 삭개오의 심령을 살려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기적을 베푸신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18년 동안 사단에서 억눌려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맘몬의 손아귀에서 해방하신다(눅13:16; 19:9 각각 참조).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잃어버린 양-동전-아들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친히 찾아와 구원하신다(눅15장 참조), 그렇게 비유가 실제가 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다(7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셨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19:9 하반절; 13:16 참조).

이웃들은 정결한 자, 무죄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부자 세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리장에게서 민족의 배반자를 보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서 참 하나님 백성을 보셨다. 동료 유대인들은 키 작은 세리에게서 약탈자를 발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게 없는 이들-과 조건 없이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자선가를 미리 발견하셨다.

언약 백성의 약탈자와 벗한다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보란 듯이 들어가신 주님, 그렇게 당당히 세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의 구원을 이루신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5절, 9절 참조). 그렇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 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생생히 살아 계신다. 그렇기에 '이제는 다 끝장이다!'고 되뇌는 영혼에도 갱생의 소망이 여전히 살아 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5절)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희망이며 세상의 소망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복음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의 결정적인 사역을 앞에 두시고도 길목에 위치한 잃어버린 영혼을 손수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로 시작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친히 구원하시는 인자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장엄한 선언으로 마무리된다(1~6절, 9~10절).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듯 은혜의 찬가다.

모든 것이 은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이다. 악랄한 죄인을 제자로 만드시는 새창조의 은혜 말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인자의 은혜 말이다.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끝〉

• 김영길 칼럼

의로운 감사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감사에도 의로운 감사가 있고 불의한 감사가 있다. 18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죤 와드(John Ward)는 그의 이기적인 기도로 유명하게 된 사람이다. 그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런던시 아홉 군데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에섹스 주에 무조건 토지 상속권으로 땅을 구입한 것도 아십니다. 간구하오니, 에섹스와 미들 에섹스 두 주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머지 주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분하소서. 오 주님, 은행이 약속어음을 지불할 능력을 갖도록 하옵시며, 저에게 돈을 빌려 준 자들을 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악(邪惡)한 자의 날은 짧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땅의 상속권을 샀습니다. 품행이 나쁜 젊은이 J.L. 경이 죽으면 그의 땅이 제 것이 되오니 주께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만일 죤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면, 그 감사는 불의한 감사이다. 만일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불행과 희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감사도 불의한 감사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면 그 역시 불의한 감사이다.

불의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시편97:10~13)

다윗도 같은 노래를 불렀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시편140:13)

이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이다. 감사하는 내용의 크기가 적을수록 더 값진 감사가 된다. 작은 일에 더 감사하자. 그렇게 작은 일들을 추억해가다가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이렇게 기도해 보자.

"주님, 저의 감사가 의롭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김만태 전문칼럼 <대학설립ABC⑤>

의료계 종사와 의료학교 설립

김만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한인 상담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한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업을 얻는 데에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 하지만 영어의 한계를 전문성의 확보로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전문 분야의 영어를 잘 익히면 일하는 데에는 원활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훈련학교들은 한인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얻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러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2014년 기준으로 861개 학교가 있고 이 중 582개 학교가 1년 미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총 학생 수는 28만 명 정도이고 이 중 1년 미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 수는 16만 명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1년 미만의 전문 직업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하러 간 적이 있다. 혈액을 채취하는 사람이 Phlebotomist라고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채혈사라는 뜻이다. 이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며 1년 미만의 채혈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주 정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의료 분야에는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으며 1년 미만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 정부 시험에 합격하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의료분야로서 1년 미만의 과정으로는 의료보조원(Medical Assistant), 의료비청구원(Medical Billing), 의약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 의료행정보조원(Medical Administrative Assistant), 공인 간호보조사(Certified Nursing Assistant) 과정이 있다. 치과 분야로는 치과보조사(Dental Assistant), 치과 테크니션(Dental Technician) 과정이 있다. 수의 분야로는 수의보조사(Veterinary Assistant), 수의 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 과정이 있다.

이러한 의료분야 학교들을 설립하려면 먼저 주 정부 교육국(BPPE)과 보건국(CDHP)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받는 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더 나아가 학교는 연방인가를 받음으로써 영주권 및 시민권자 학생들에게 연방 무상 보조금을 제공하고 유학생 비자발급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 SAS 인가컨설팅(SAS, Inc.)은 직업학교 설립, 종교 특례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일반대학 설립, I-20 신청, 연방인가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문의: 213-531-7215
*www.saseducation.weebly.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정창균 | 설교자하우스 | 134쪽

하루는 대학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박윤선 목사가 양영학 학생을 연구실로 불렀다. 연구실에 들어서는 그 학생을 한참 바라보고, 한 동안 침묵하다가 한 마디를 하였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과,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양 선교사는 그 당시 1980년 총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졸업반 학생이었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똑똑한 처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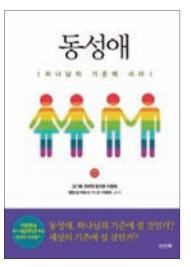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고성준 | 규장 | 240쪽

안정적으로 교수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저자 고성준 목사는, 당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고민하는 당신에게, 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강조한다.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우택 외 | 홍성사 | 336쪽

이 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주제이자 화평, 화목, 평안, 평강 등 다양한 언어로 성경에 등장하는 '평화'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12명의 연구위원들은 기독교인이 삶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야 할 평화를 총론에서부터 개인과 가정, 교회, 한국사회, 국제사회 등 영역별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평화를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연구했다.

동성애 : 하나님의 기준에 서라
박만수 외 | 비전북 | 168쪽



이 책은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인권의 추구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를 찬성 또는 옹호하거나 동성애에 동조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하셨는지, 그리고 의료·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그리스도교 영성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 '기도'

기도의 영적 측면으로 서술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기도에 대해 '그리스도교 영성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소개하는 이 책은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영적 측면으로 서술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에 다가가도록 해준다.

저자에 따르면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자 "지금 이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길을 걷는 여정"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시간과 삶의 우선권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삶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숨어계신 것처럼 보이나 숨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여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도가 어렵다는 이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며 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그분에게는 시간이 많고, 우리에게는 그분과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용기를 북돋운다.

2장 '더 깊게 들어가기'에서는 침묵에 젖어들기, 신비에 들어가기, 사막을 지나기,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등이 있는데, 현 시국과 관련해 '행동을 준비하기'가 눈에 띈다. 저자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는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회에 만연한 고통과 행동을 향한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도
존 프리처드
비아 | 144쪽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사람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라 외치셨다"며 "그분은 따뜻한 이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히 잠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알람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러 오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전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기 △무언가를 볼 때나 귀 기울일 때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음성을 듣기 △기도란 불온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의 삶을 살필 때 복음서의 중심 선언인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에 비추어 읽어보기 등을 제안했다.

출판사는 책 뒤에 '함께 읽어볼 만한 책'으로 기도와 관련된 국내외 12권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영국 성공회 성직자이자 문필가로 현재 SPCK(Society for Promotion of Christian Knowledge)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기도하는 법(How to Pray)〉, 〈교회에 가다(Going to Church)〉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북스리뷰]

예배당 밖의 예배,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 강조해

믿음을 살다
휴 홀터
CUP | 300쪽

◈어떻게 받아들여 질까?

이 책은 묵직한 신학서적은 아니지만, 묵직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편안한 책이라 말하고 싶다. 이 책의 원제는 'Flesh'이다. '육신', '육체' 등의 의미를 가진,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주제의 단어이다. 이것을 CUP출판사에서 '믿음을 살다'로 책의 내용을 잘 살려 제목을 붙여 주었다.

필자는 저자 '휴 홀터'를 처음 접한다. 이 책을 통해 '휴 홀터'에게 가진 이미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책의 저자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제법 엉뚱한 친구를 만나고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재미있고, 웃기고, 또 만나고 싶은 친구로 느껴진다. 첫째, 아이디어가 넘치는 친구다. 그리고 수다가 많은 친구다(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인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강단이 있고 용기 있는 친구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확신에 찬 친구이다.

그러기에 '육신'이라는 단어를 주저하지 않고 책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육신'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첫째 '육신'이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이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신(神)'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신(神)령한' 인간이 되려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간으로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 '성육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어떤 이에게는 힌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도발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궁금하다.

◈분명한 철학

주후 3세기부터 기독론에 논쟁이 있었다. 그 결과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독론에 있어 여전히 개운치 않은 점은 여러 번에 걸친 회의들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통합적 설명이 불가능한 몇몇의 신비들에 대해 이단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하여 인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인성을 강조한다 하여 신성을 부인한다는 식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둘을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불가능한 신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은 분명 예수님의 육신적인 인성의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초월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

분명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어떻게 메시아직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저자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즉 인간으로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부름과 보냄 받은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의 철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에서 우리는 힌트와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수평과 수직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책들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수평적 관계에 대한 책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는 책을 수직과 수평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분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삶으론 부족하다. 우리는 예배당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의 의식을 따라 드리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를 이 책은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모두 참된 신자는 아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가디너 스프링
생명의말씀사 | 192쪽

저자인 가디너 스프링(Gardiner Spring)은 설교를 통해 큰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목회자의 제일 되는 임무는 다름 아닌 설교이며, 바른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뿐인 불멸하는 영혼이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는 바로 설교를 위해 있는 존재이며, 헤르만 바빙크의 말처럼 소명은 은사로 확인되는 것이다.

책의 초반부에서 저자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대치할 수 없다. 자신의 행위와 도덕, 윤리와 인격과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복음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는 자신이 참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바른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매우 많은데, 진리를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되는 자질과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이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저자의 정확한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도 일치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친다.

저자는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복음적인 겸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외식자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 안에서의 순전한 사랑 역시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집에 있던 큰 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 대해 거짓으로 음해하는 악한 이들과,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교회의 열쇠는 강단과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 설교는 한 목회자의 신앙과 실력과 인격, 삶과 신학의 결정체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떠도는 말에 귀를 기울이나,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기가 괴로울 정도의 설교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성장할 수 있는 바른 길은 참된 설교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는 회중들이 설교를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바울의 학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까지 공격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임무이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바로 잡히게 되는 것 역시 지당한 일이다. 믿을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좋은 목회자는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설교는 그 목회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목회자는 설교로 말하는 사람이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임을 이 책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재윤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신앙 여정에 첫발 내딛는 이에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학
두란노 | 256쪽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균형 잡힌 신앙의 첫 수업.

"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학에 기초한 바른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쓰인 귀중한 책입니다"(김명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총장)

이 책은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새신자부터 그리스도를 자신의 존재와 인격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이다.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로 새롭게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포항제일교회 이상학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련해 많은 새신자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애써 왔다. 저자의 첫 책인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간의 교육과 훈련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열매를 바탕으로 쓰였다.

이 책은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본질을 배움이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화를 섞었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학생모집

모집부문

신학대학교 신학과 (BA)–4학년

신학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과정– 3년 / 96학점
2) M.A. 목회학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과정–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3년 / 48학점
5) Th.D. 신학 박사과정–3년 / 56학점

강의일정

요일	시간	학과목	교수
화요일	7pm~9pm	바울서신	엘리야 김 박사
목요일	10am~12pm	신약신학	고영준 박사
	1pm~3pm	현대 교회사	민준기 박사
	3:10pm~5:10pm	기도학	김정복 박사
	5:20pm~7:20pm	현대신학 사상사	이경화 박사
	7:30pm~9:30pm	헬라어	송인 박사
토요일	10am~12pm	이미지를 통하여 성경 이해하기	송인 박사

*바울서신,기도학, 성경 이해하기는 평신도 청강을 환영합니다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러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213-272-6031, 213-235-6889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초대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잔치로...

환영합니다.
만남과 축복의 장소에 오심을...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제를 통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와 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배안내

예배 요일	예배시간
주일 예배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매일새벽예배	매일 오전 6시

매주 목요일에는 프드뱅크로 성도들의 가정을 섬김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엘리야 김 목사 (213)272-6031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November 24, 2016 Vol. 78

Korean American pastors gathered at the SOLA Network brunch which took place on November 17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How Can Senior and Associate Pastors Build Healthier Team Dynamic?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pastors in primarily Korean American churches or multi-ethnic churches may not face language or culture barriers as they might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they still face difficulties due to the differing obligations of different pastoral positions, as well as the differing life experiences of different generations.

For instance, the senior pastor's role is to "drive the bus for the whole church," while that of the associate pastor is to "drive a portion of it," according to Steve Chang (54),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Chang was part of a panel of four Korean American pastors at a brunch event hosted by the SOLA Network, which took place at Living Hope on Thursday. The panel was centered on the topic, "Building Healthy Teams," and panelists discussed the challenges senior and associate pastors might face -- though they may both be Korean Americans -- in having a healthy team dynamic.

"Multiple times, I had to say no to Bang," Chang added, referring to his interactions with Living Hope's college pastor, Steve Bang Lee (31). Chang said he understood why Lee would make certain requests, and that even he would have done the same had he been in Lee's position.

"But I had to think of all of the implications for the whole church," said Chang.

Different expectations from being in different positions may also cause misunderstandings, said Lee. On the one hand, the senior pastor's drivenness to mobilize the church toward its vision may cause the associate pastors to think, "Am I just a cog in your machine?" On the other hand, an associate pastor's desire to learn and receive mentorship from the senior pastor may cause the senior pastor to think, "Am I supposed to be your therapist?"

Those differences also stem from differences in generation, according to Chang. When Chang had served in associate-level roles during his earlier years in ministry, he said, "I didn't look for or expect emotional support from my senior pastor. I just wanted clarity and freedom."

Jimmy Han (51), the lead pastor of Good News Chapel, shared that his experiences during his earlier years in ministry caused him to be more compliant, which affected the way he functioned as a lead pastor.

"When they wanted me to lead, I was compliant," said Han. "I didn't know what I wanted to do, because for so long, I've always said yes."

In terms of resolving differences, the panelists offered ideas on how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and regularly. For the younger pastors, Eugene Park (26) of Gospel Life Mission Church recommended getting to know themselves better, as well as taking time to "figure out their senior pastor." Lee encouraged younger pastors to get to know the "valuables" of the senior pastor — the things that the senior pastor values most — and communicate with him based on those valuables. And Han recommended pastoral staff to have regular times of fellowship not necessarily related to ministry, such as going on retreats and having monthly meals together where "not just business is talked about."

"You have to lead, but you also have to love," Han said.

The panel was the first event specifically for pastors hosted by the SOLA Network, which was formed as organizers of the SOLA Conference aimed to resourc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a broader and longer-lasting reach. The SOLA Network also plans to launch a website in which articles, Q&A videos, and other resources from Korean American pastors will be posted.

The SOLA Conference, which has been organized by a partnership between Korean American pastors from various local churches since its beginnings in 2013, had also consistently featured a pastors' luncheon with panels and Q&A sessions.

Building Friendship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for Thanksgiving

BY RACHAEL LEE

For the past four years,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has taken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Thanksgiving holiday to reach out to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was no exception. YNCC's Thanksgiving Lunche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ok place on Saturday (November 19) at YNCC's Jefferson site, located about one mile away from the USC campus. About 60 students and volunteers gathered and played games, learned about the American Thanksgiving tradition, and shared traditions of gratitude in their respective cultures. Volunteers from YNCC stay connected with students and keep in touch throughout the year, according to Yana Ahn, the missions pastor at YNCC.

"USC hosts the second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hn said. This fall semester, over 10,000 international students were enrolled at USC. "Most of them come from restricted areas where the Gospel is not easily accessible in their own country. Thus, it is the world coming to us, and we want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them while they are here. That's how the minist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began."

The Thanksgiving Luncheon is one of several events that YNCC hosts during the school year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they partner with other campus ministries specific to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All Nations, Worldwide Friends, and LA International. During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they host a 'Free Goods Day,' providing household necessities donated by YNCC's members. The church also hosts barbecues, hiking events, and other events to continually build friendships with the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are open to new ideas and they are here from restricted and unreached areas, and will be the future leaders of their countries," Ahn said, emphasizing the need for churches to become more deeply involved in ministry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According to the Open Doors Report released earlier this month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undreds of thousands of new international students are enrolled in U.S. universities each year. In the 2015 - 2016 school year, over one million international students were enrolled in U.S. universities. Most students come from China (31.5 percent), India (15.9 percent), and Saudi Arabia (5.9 percent).

"We have one missionary locally and two other missionaries who partner with YNCC in other parts of the U.S. who are very willing to go and help other churches to be involved in this ministry," Ahn sai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reaching out to international students could contact internationals@jeffersonla.org.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volunteers and USC's international students pose for a photo at the Thanksgiving Luncheon. (Photo courtesy of YNCC)

'We Experience the Miracle of Jesus Everyday'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 few blocks' walk eastbound past the flashy area of downtown Los Angeles is Skid Row. Within the U.S., Los Angeles is home to the most individuals who are homeless, and within Los Angeles, most of those who are homeless call Skid Row their home. And in the middle of Skid Row is 5 Breads 2 Fish, a ministry that serves those who are homeless and poor in the name of Jesus.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inistries a part of the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founded by Pastor Jimmy Lee in 2011 as he received God's call.

5 Breads 2 Fish simply gives food to some 1,000 families in Los Angeles and the surrounding region, with no strings attached, each week in the name of Jesus. Supposing a family consists of approximately three individuals, 5 Breads 2 Fish is serving a truly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Initially, the ministry opened a free restaurant for those who are homeless, but due to some opposition, the restaurant closed down about four to five years ago. However, the ministry instead focused on delivering the food to individuals through food drives. And the ministry remains alongside those who are homeless in Skid Row.

Food received from Trader Joe's and other sponsoring food companies are loaded onto the 5 Breads 2 Fish truck each day and is taken to the 'Father's Warehouse,' where the ministry staff and volunteers sort the food according to whether it is edible or not. The work requires many hands to be able to sort enough food to feed hundreds of people, but thankfully the work load is shared by many volunteers from various Korean churches who come in to serve each day.

Every Wednesday, members of Together Presbyterian Church come to serve. As the truck arrives at the 'Father's Warehouse' at around 10:30 AM, suddenly the church members also gather around in the warehouse.

They exchange brief greetings with Pastor Kevin Kim, who watches over the warehouse, and everyone moves quickly to sort the food. This is to ensure that the food can be delivered to those who are waiting in a timely manner.

After the sorting is complete, the food returns into the truck and is sent to various places throughout Los Angeles. And in those respective places, more volunteers are waiting to distribute the food.

Members and elders of Together Presbyterian Church gather at the Father's Warehouse on Wednesday mornings to help sort the food.

The work required by the 5 Breads 2 Fish ministry sounds as though Jimmy Lee might have his hands full, but he also distributes food in Mexico, and lives with his wife in Brazil, serving 200 children there.

The miracle that Jesus performed 2,000 years ago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was so significant that it was recorded in all four gospel books in the Bible. And Jesus, along with those who believe in the miracle, have been performing that miracle for people in Los Angeles each day.

RCA's Queens Classis Inaugurates First Korean Female President

Since the Queens classis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inaugurated its first Korean female president, efforts to build greater unity among the members of the classis have been taking place, such as holding prayer meetings for the members in the Queens classis.

Youngae Na, pastor of Forest Park Reformed Church, was inaugurated as the president of the Queens classis on October 18, and since then, she has sought out churches with conflicts and acted as a mediator. On November 6 and 13, the classis held events sending out a missionary to China, and raising up a Latino pastor.

Na, who has been serving as an English ministry pastor in the New York synod of the RCA for the past 27 years, is opening up a chapter of reconciliation as the first Korean female president of the Queens classis.

One of the most positive changes within the Queens classis is the prayer meetings for the classis members.

"When we pray for one another and bless each other, the resentment in our hearts disappears, and the factors that can cause conflicts goes away," Na explained.

Reflecting such an atmosphere within the classis, on the 6th and the 13th, two significant and progressive events have taken place. On November 6, the classis held a send off ceremony as they sent off a white missionary to China. On November 13, an ordination and inauguration ceremony took place at Iglesia de Cristo la Roca for Pastor Pedro Agudelo, during which singers and musicians from Korean churches performed to congratulate the pastor and church.

Na graduated from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in 1989, and was ordinated in the RCA in September of 1999.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Washington 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Involving Arlene's Flowers Discrimination Case

Hundreds of people were present earlier this month at the Washington Supreme Court as it heard arguments regarding a case that involves Arlene's Flowers, a flower shop which has been accused of discrimination against a gay couple by refusing to make flower arrangements for their wedding in 2013.

Florist Baronelle Stutzman had served her customers Robert Ingersoll and his partner Curt Freed for a long time, but declined a request to do flower arrangements for their wedding because it was against her religious beliefs.

The state Supreme Court was hearing Stutzman's appeal against a lower court's ruling in 2015, which said that the florist violat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 Act.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 Bob Ferguson said that freedom to believe and freedom to act were different.

"Ms. Stutzman for her religious expression is free to believe what she wishes," Ferguson said. "But when she engages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avails herself of the protections and benefits that come with being a business, there are of course responsibilities that flow from that."

The florist's lawyer argued that creative designs are expressions of the self and cannot be forced.

"It's undisputed that Mrs. Stutzman would be more than happy to sell pre-arranged flowers, flowers out of the cooler," said Stutzman's lawyer Kristen K. Waggoner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Anything but the custom arrangement that requires intimate involvement in creating the expression itself."

"A Christian floral designer shouldn't be forced to create custom floral designs for a wedding that's not between a man and a woman," added Waggoner.

Members of Bellevue College's LGBTQ community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gay couples' and the group's interests.

"We've worked so hard for our gains. This is trying to push back years and years of progress. It's disheartening," said Isaac Hopps, campus LGBTQ leader.

Prior to the hearing, Waggoner had told World magazine that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people to see that this was "about ideas, not a person."

"By suing Barronelle in her personal capacity, the government is threatening her home, her life savings, her retirement, because she doesn't agree with its ideology. That's pretty alarming," said Kerri Kupec, one of her attorneys.

Stutzman voiced her concern over the debasement of freedoms in America.

"The government is coming in and telling me what to say, what to create, what to believe. That's not America to me," Stutzman had said in a phone interview to The Seattle Times.

University's Policy Denies Students Credit for Volunteering at Church

BY CHRISTINE KIM

A university in Wisconsin denied two students credit for the hours they spent volunteering at a church.

The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requires students to complete 30 hours of "service learning activity" in order to graduate.

One student Alexandra Liebl spent 30 hours teaching a second grade religion class at Newman Parish, a local Roman Catholic Church. In April, however, she was notified by the university that she would not be receiving credit for her volunteer hours completed at the church due to its religious nature, citing the Service-Learning Policy, which maintains that the university does not award credit for "time spent directly involved in promoting religious doctrine, proselytizing, or worship."

Student Madelyn Rysavy volunteered at Sunday School Classes at the same church.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representing Liebl and Rysavy, filed suit against the university, arguing that all forms of community service should be equally given credit and that the university is unconstitutionally showing preference to non-religious beliefs over religious beliefs.

The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refused to give credit to two students for the hours they spent volunteering at church. (Photo: Public domain)

"No public university should ever use a community service program as a vehicle to advance and instill anti-religious bias," said Travis Barham, legal counsel for ADF. "If the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wants to require its students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it must treat all forms of community service as equally valuable. The Constitution and federal court precedent prohibit it from targeting religious community service and denying students credit for it. That kind of animosity toward and discrimination against religion is unconstitutional."

Thousands of Indonesians March in Support of Jakarta's Christian Governor Charged for Blasphemy

Over 10,000 Indonesians rallied on the streets of Jakarta last week to call on their countrymen to unite in support of the Christian Governor Basuki "Ahok" Tjahaja Purnama, who is under investigation for his comments on the Quran. He was interrogated for nine hours by the police, and has officially been charged as a suspect in a blasphemy case.

The protesters urged the citizens to demonstrate tolerance and not be divided by chaos perpetrated by political interests.

The demonstration was held at the National Monument at Merdeka Square in the capital city, with people carrying a huge Indonesian flag and shouting, "United Indonesia cannot be defeated."

Earlier this month, hundreds of thousands of Muslims gathered in Jakarta to call for Purnama's arrest. Riots were also reported from the city, which led to the death of one person, and several others were injured. Radicals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or be arrested.

However, a professor admitted that he edited the video of Purnama's comments before posting it on Facebook to make it seem like he was insulting the Quran.

The video makes it look like the governor is saying that the Quran is lying to people in Surah 5:51. But the governor was known to have said, "You've been lied to by [people] misquoting the 51st verse of the Al-Maidah."

The professor was questioned by National Police on November 17, and his lawyer told reporters that his client has admitted to editing the video to distort the meaning of the governor's comments.

Lawmakers, religious leade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were among those marching in support of Purnama.

Purnama is the only currently serving Christian governor in Indonesia, and the second on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He is contesting his reelection in February. If convicted of blasphemy, he can spend up to five years in prison. The governor is popular among the people because of his crackdown on corruption and was likely to win his second term before the blasphemy case was levelled against him, according to a city-based survey reported by The Jakarta Post.

Thousands Participate in Demonstration in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Bill in Taiwan

The Taiwanese government is set to pass a bill legalizing gay marriage which is being opposed by many residents of the capital city Taipei,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ousands of demonstrators protested against the bill in front of the Legislative Yuan last week.

They held signs with messages that urged the government to let the people determin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 China Post reported that protesters had put large stickers on their clothes which read, "Marriage and family, let the people decide."

Many young children were seen standing in the rally with their parents who had gathered there since early morning.

In the afternoon, about 60 demonstrators forced their way into the gate of the Legislative Yuan complex and sat outside the assembly hall in protest after the lawmakers declined to allow a public hearing to discuss the matter. Later they were removed from the complex and the gate was cordoned off.

The officials relented and will hold two public meetings before voting proceeds in the legislature.

The Alliance of Taiwan Religious Groups for Protection of Family had organized the rally. Many of the protest leaders spoke to the crowd from a temporary stage at the site. One of the leaders was heard as saying: "All children have the right to a mother and a father."

The group supported some rights such as emergency visitation and inheritance rights for same-sex partners, but said that marriage should be between a man and woman only.

"Now they want to amend the law to do away with the 'father' and 'mother' altogether," David Tseng, rally spokesperson told AFP. "We are different from the West. In Eastern culture, we place great importance on filial piety to one's father and mother. This is a virtue we must keep," he added.

The conservative Kuomintang (KMT) party had dominated the country's politics for years befor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ame to power in May this year.

President Tsai Ing-wen backs gay marriage, and said she would stand by the outcome of the vote in the legislature.

If this bill is passed, Taiwan would become the first Asian country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Gay pride rallies are an annual event in Taipei and the one in October was attended by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